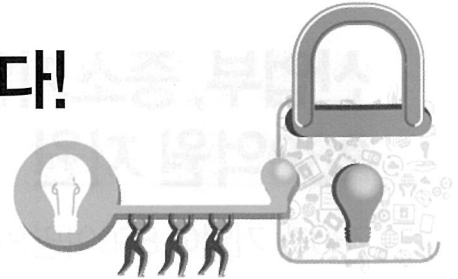


#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제품안전 강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유통업계”간 상호협력 MOU 체결



불량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위치한 유통업계에서도 제품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주)이마트·(주)롯데닷컴·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대상 유통업체 현황〉

업 계 명	업 계 명
(주)이마트	(주)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주)AK mall
(주)현대홈쇼핑	(주)인터파크INT
(주)씨제이오쇼핑	(주)이베이코리아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사 정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사고조사 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제품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정 사고조사센터 : 전기안전연구원 등 11개 기관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제품에 대해 신속히 리콜조치를 취함으로써 또다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사고조사를 시행하고자 사고·위해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국가기술표준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 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유통시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분석된 사고정보를 제품안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성시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량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02-509-7292)